

영한 일치구문의 제약기반적 분석

임 경 섭
(동신대학교)

Lim, Kyung-Sup. 1999. A Constraint-Based Analysis of Agreement Constructions in English and Korean. *Linguistics* 7-3, 127-156. This paper is mainly concerned with agreement constructions in English and Korean. By adapting some arguments due to Mike Barlow, Pollard and Sag (1994) argued that a constraint-based approach to agreement is better than the derivational approach. A constraint-based analysis of an agreement system must include a theory of what kinds of objects are affected by agreement processes, an account of partial lexical entries, and a general theory of the constraints that establish the token identity of the relevant agreeing structures. In treating agreement constructions, HPSG used the features INDEX, C-INDICES and BACKGR. This paper shows how a constraint-based approach treats the three basic types of agreement--subject-verb, specifier-noun, pronoun-antecedent--in English, the agreement constructions in the existential *there* construction, and Korean honorific agreement constructions.(Dongshin University)

1. 서론

이 논문은 영어와 한국어의 일치구문을 제약기반 문법이론에 의하여 분석한다. 통사, 의미, 화용적인 측면을 고려한 HPSG의 일치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영어의 주어-동사의 일치, 지정어-명사의 일치, 대명사-선행사의 일치와 *there* 구문에서의 일치현상의 분석에 적용하고, 더 나아가 한국어의 일치구문의 분석에도 적용하고자 한다.

- (1) a. Kim walks.
- b. *Kim walk.
- c. The hash browns at table nine are/*is getting cold.
- d. Eggs is/*are my favorite breakfast.

- e. The faculty are all agreed on this point.
- f. All of the creeks are polluted.
- g. All of the water is contaminated.
- (2) a. This dog barked.
- b. *This dogs barked.
- c. Much furniture was broken.
- d. *A furniture was broken.
- (3) a. The boy met the man who I saw yesterday.
- b. *The boy met the man which I saw yesterday.
- c. The soldiers which were made of lead were thrown away.
- d. She_i enjoys herself/*himself_i.
- e. Susan_i told a story to herself/*her_i.
- f. The ham sandwich at table six just made a fool of himself/*itself.
- (4) a. There is/*are no one absent.
- b. There are/*is no students absent.
- c. There is/*are believed to be a sheep in the park.
- d. There are/*is believed to be sheep in the park.
- (5) a. 김사장이 왔다.
- b. 김사장님이 오셨다.
- c. #김사장이 오셨다.
- d. #김사장님이 왔다.
- e. 학생이 선생님께 책을 드렸다.
- f. #학생이 선생님께 책을 주었다.

일치현상을 크게 표준적인 현상과 특수한 현상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예문 (1)의 주어-동사의 일치 가운데 (1a,b)는 표준적인 예이고, 특수한 경우로서 (1c)는 지시전이의 예, (1d)는 단수형 복수의 예, (1e)는 집합명사의 예, (1f,g)는 명사 *all* 등의 수가 보어 전치사구 속의 명사구의 수와 일치하는 예들이 있다. 예문 (2)의 지정어-명사의 일치 가운데 (2a,b)는 표준적인 현상이고, (2c,d)는 물질명사와 지정어의 일치를 다룬 특수한 경우이다. 예문 (3)의 선행사-대명사 일치 가운데 (3a,b)는 표준적인 현상이고, 특수한 경우로서 (3c)는 선행사가 사람이지만 관계절과 결합하여 사물이 되

어 관계대명사가 바뀌었다. (3d,e)는 조용사 일치 가운데 표준적인 것이나, (3f)는 선행사가 사물의 형태이나 지시전어가 되어 재귀대명사의 형태가 바뀌는 특수한 경우이다. 예문 (4a,b)는 *there* 구문 속의 일치로서 *be* 동사의 어휘항목 속의 제약에 의하여 설명되며, 특히 (4c,d)는 장거리 수의 일치 현상으로 HPSG의 상승원리 등의 적용에 의하여 설명된다. 마지막으로 (5,a,b,c,d)는 주어 존칭의 일치이고 (5e,f)는 목적어 존칭의 일치 현상이다.

본문의 구성은 영어 및 한국어 일치구문을 분석하기 위하여 2장에서 HPSG의 이론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각각의 영어 일치구문을 표준적인 것과 특수한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고, 4장에서는 한국어의 일치구문을 주어 존칭과 목적어 존칭으로 나누어 제약기반 분석에 의하여 다루고자 한다.

2. HPSG 이론

2.1 제약기반적 접근법

일반적으로 일치란 ‘언어 표현의 체계적인 공변이(covariation)’라고 정의되며, 2가지의 접근방법에 의하여 연구되어 왔다. 하나는 도출(파생)적(derivational) 접근법으로, 일치 통제자(agreement controller)라고 불리는 명사에서 일치자질 다발을 해당되는 일치목표(agreement target)라고 불리는 어떤 것에 복사하거나 이동시키는 방향성 절차가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제약기반(constraint-based) 접근법으로, 일치관계에 참여하는 2가지 요소는 하나의 언어 대상물에 대하여 부분 정보를 명시한다. 일치란 단순히 단 하나의 대상물에 대한 2가지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정보가 일치한다는 사실에 기인한 형태상의 체계적인 변이이다. 이러한 제약기반적 방법은 언어사용의 전산적인 전망에서 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일반화를 통해서 도출적 접근법보다 더 나은 방법이다.

Barlow(1988)와 Pollard & Sag(1994)은 제약기반 접근법이 도출(파생)기반 접근법 보다 낫다는 것을 French, Walmanpa, Onondaga, Polish, German의 예를 통하여 주장하였다.

- (6) a. Il est heureux. ‘He is happy (masc).’
- b. *Il est heureuse. ‘He is happy (fem).’
- c. Je suis heureux. ‘I am happy (masc).’

- d. Je suis heureuse. 'I am happy (fem, sing).'
- e. Tu es heureux. 'You are happy (masc).'
- f. Tu es heureuse. 'You are happy (fem).'

French에서 서술형용사(predicate adjectives)는 수와 성에 관하여 주어와 일치해야 한다. (6a)에서 주어와 서술형용사는 남성으로 일치하고, (6b)에서는 여성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6c,d)와 (6e,f)에서는 주어와 서술형용사의 성이 일치하지 않고도 정문이 된다. 문제점으로 1인칭과 2인칭 대명사를 위한 다중 어휘항목을 상정하여야 한다. 도출기반 접근법에서는 주어 명사구에서 일치목표(서술형용사)로 완전히 명세된 일치정보의 다발을 복사하는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제약기반 접근법에서는 어떤 대명사의 중식도 요구되지 않는다. 단지 1인칭과 2인칭 대명사는 인칭에 관한 정보만 가지고 있고, 성에 관한 정보는 미명세된다. 그리하여 서술형용사에 의해 명세된 성과 일치하는 남성이나 여성의 주어를 갖는다.

일치현상을 가장 심도 있게 다룬 이론은 일반구구조문법(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이다. GKPS(1985)는 통제일치원리(Control Agreement Principle)를 수립하여 설명하였는데, 이 설명은 통사적인 접근이었다. 그러나 영어 일치현상을 통사현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예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7) a. the man who/*which I saw
 b. the book which/*who I saw
 c. The soldiers which were made of lead were thrown away.

(7a,b)처럼 관계대명사 *who*는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 *which*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 경우에 쓰인다. 반면에 (7c)에서 *soldiers*는 원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who* 이어야 하나, 조각품이기 때문에 무생물이 되어 관계대명사가 *which*가 된다.

Barlow(1988)는 *who*와 *which*의 선택은 주어진 구의 고유의 통사적 속성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시대상자(referent)와 연결된다. 즉 (7c)에서의 관계대명사의 선택은 선행사의 통사적 속성과 연관되지 않고 의미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시대상자와 연관된다.

영어의 일치현상을 의미적 현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예문도 발견할 수 있다.

- (8) a. *The ship lurched, and then she righted itself.
- b. The ship lurched, and then she righted herself.
- c. The ship lurched, and then it righted itself.

만약 수와 성의 일치현상이 순수하게 의미적 현상이라면, (8a)가 정문이 되어야 한다. *ship*의 성이 여성도 되고 중성도 된다면, 주어의 형태로는 여성을, 재귀대명사의 형태로 중성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8b)에서 화용적 관습(pragmatic convention)에 의하여 배가 여성명사로 주어지면 대명사는 *she*가 되고, 결속원리에 의하여 재귀대명사는 *herself*가 된다. 반면에 (8c)에서 배가 화용적 관습을 배제하여 사물로서 대명사를 *it*로 받는다면, 재귀대명사도 결속원리에 입각하여 *itself*가 되어서 정문이 된다. 위의 예문들을 통해서 볼 때, 일치의 문제가 의미적 현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통사적 원리도 준수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일치현상이 화용론적 정보에 의존하는 예문을 발견할 수 있다.

- (9) That dog is so stupid, every time I see it I want to kick it.
 He's a damned good hunter though.

위의 2개의 문장은 같은 담화에서 쓰인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a male dog*이 남성 대명사([GEND masc])인 *He*와 중성 대명사([GEND neut])인 *it*로 지칭되었다. 이는 영어의 화용 원리(pragmatic principle)에 *a male dog*을 남성 또는 중성으로 지칭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대략 말하자면 남성 대명사는 중성 대명사가 갖지 못하는 애정이나 친근감의 내포(connotation)를 지닌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명사 일치의 변환은 화용적인 정보 즉, 개에 대한 화자의 태도 또는 개에 대한 개체화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를 알려주는 것이다.

일치현상은 통사, 의미, 화용적인 정보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기술되며 또 각 현상에 대한 제약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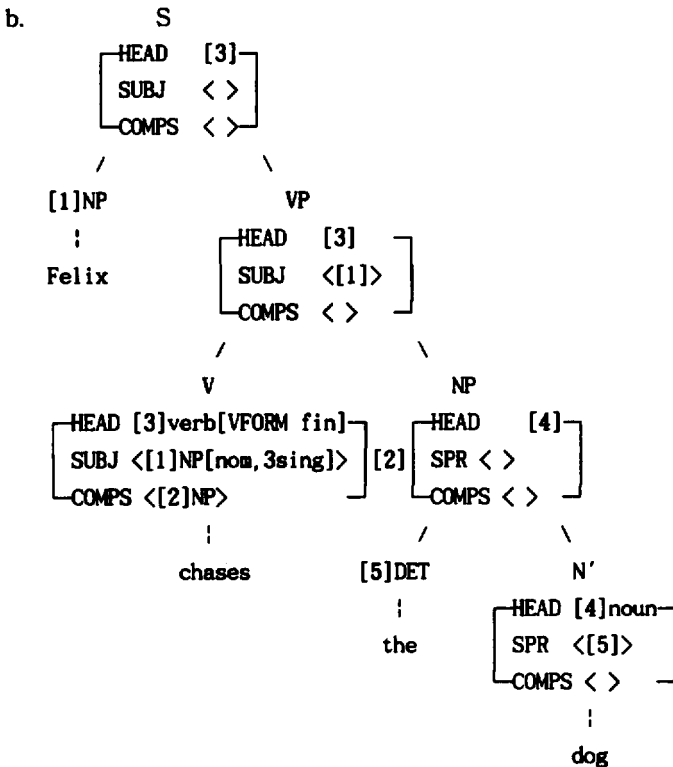
2.2 이론적 장치

- (10) a. HPSG is a constraint-based theory of grammatical competence.
- b. HPSG is a lexicalist theory.

HPSG는 문법 능력에 대한 제약기반의 이론이다. 어휘항목, 구, 절, 규칙 및 원리의 모든 표지는 언어적 개체를 모형화 하는데 이용되는 자질구조에 대한 부분적인 기술 또는 제약이다. 또 HPSG는 어휘주의의 이론이다. 어휘의 속성에 의하여 단어는 계층적으로 분류되고 다중상속위계에 의하여 유형 위계가 생기며 각 유형의 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문에 대한 일반적인 제약은 상위유형의 속성에 표현되고 개별적인 특이성은 하위유형의 제약으로 수용된다.

아래의 예문과 그의 수형도를 통해서 이론적 장치의 적용을 보기로 한다.

(11) a. Felix chases the dog.



예문 (11a)의 수형도 (11b)는 유형위계에 따른 제약들을 준수한다. 자질구조는 속성-속성이 행렬의 형태를 갖는다. 어휘유형과 제약을 살펴보면, 핵어동사 *chases*는 핵어값으로 품사가 동사이며 동사형태가 *fin* 이고, 항가자질 가운데 SUBJ의 값으로 3인칭 단수 주격의 명사구를 취하고 COMPS의 값으로 명사구 하나를 요구한다. 의미내용은 *chase* 관계를 가지며 논항으로 CHASER와 CHASED를 갖는다. 논항 CHASER는 값으로 주어 명사구를 그리고 논항 CHASED는 보어 명사구를 갖는다. 구유형과 제약을 살펴보면, 상위의 주어 명사구 *Felix*와 핵어 동사구 *chases the dog*은 핵어-주어 도식에 의하여 인가되고, 동사구를 이루는 핵어동사 *chases*와 보어 명사구 *the dog*의 구조는 핵어-보어 도식에 의하여 인가되고, 하위의 명사구 *the dog*는 지정어 *the*와 핵어 *dog*의 결합으로 이는 핵어-지정어 도식에 의하여 인가된다. 한편 원리와 제약에 관하여 살펴보면, 핵어구의 HEAD 값은 핵어말의 HEAD 값과 동일하다는 핵자질원리와 핵어의 항가자질은 모범주로 상속되며 적당한 항가자질이 나타나면 핵어의 자질값에서 삭제된다는 항가원리 등이 있다. 핵자질원리에 따르면, 핵어동사 *chases*의 HEAD 값([3])이 상위의 동사구, 맨 위의 문장의 HEAD 값([3])과 동일하다. 또 명사구 *the dog*에서 핵어 명사의 HEAD 값([4])이 상위의 명사구의 HEAD 값([4])과 동일하다. 항가원리에 따르면 핵어의 항가자질이 모범주까지 전달될 때에 적당한 항가자질이 나타나면 그 값에서 삭제 연산한다. 핵어동사 *chases*의 항가자질로 SUBJ와 COMPS가 있는데, 보어로서 명사구를 취하여 상위의 동사구가 될 때 COMPS의 값이 삭제되어 영이 되고, SUBJ는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상속되었다가 주어 명사구를 취하여 문장을 만들 때 삭제되어 SUBJ 값이 영이 된다. 하위의 핵어명사 *dog*은 항가자질로 SPR(<5>)을 가지고 있다가 지정어([5])를 취하여 명사구를 만들 때 삭제되어 명사구의 SPR 값은 영이 된다. 절유형과 제약에 관하여 살펴보면, 영어 문장은 크게 4가지 즉 평서문, 관계문, 의문문 그리고 명령문으로 나뉜다. 각각의 유형들은 각각의 제약을 지켜야 한다. 예문은 평서문으로서 [CONTENT proposition]의 제약을 갖는다. 즉 의미내용은 명제 (proposition)를 취하여, 의문문의 *question*이나, 명령문의 *directive*와는 구별된다.

일치현상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지표일치(index agreement), 통사일치(syntactic agreement), 화용적 일치(pragmatic agreement)가 있다. 지표일치는 주어-동사 일치, 대명사-선행사 일치현상

을 다루며 지표(index)의 동일성을 요구하며, 통사적 일치는 CASE의 통사적 선택을 다루며, 화용적 일치는 한국어의 존칭과 독일어의 'polite' 복수의 화용적 양립성(compatability)을 다룬다.

일치현상에 대한 HPSG의 설명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지시적 지표(referential indices)라고 불리는 의미적 정보이다. 이 지표는 하부 표기(subscript) i, j, k 등으로 표시된다.

속성 INDEX는 자질구조를 속성가로 취한다. 이 자질구조의 3개의 자질 PER, NUM, GEND가 일치현상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자질구조는 속성 CONTENT에 포함되는 순전히 의미적 자질구조이다. 즉 속성 PER, NUM, GEND은 통사범주의 속성이 아니고, 지표의 속성이다. 그래서 대명사의 여러 형태도 지표내의 다른 명세와 관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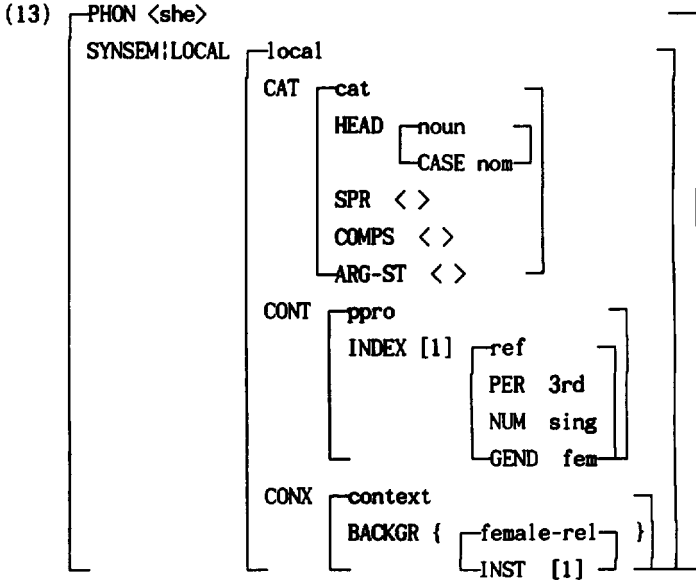
남성과 중성을 각각 남자와 비인간에 정박되도록 연결하는 유사한 제약과 더불어, 명세 [GEND fem]을 갖는 지표가 여성에 정박되도록 요구하는 화용적 제약이 있다. 그런 제약이 아래 예문의 대명사 선택이 지시대상자의 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 (12) a. John_i thinks she_i is smart.
 b. My neighbor_i thinks he_i/she_i is smart.
 c. [pointing to a man] *She_i is tall.

(12a)에서 하부 표기된 지표 i 는 3인칭 단수 여성 지표이다. 다른 이론에서 지표 i 는 두 명사 표현이 동일 인물을 지시한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다. 그러나 HPSG에서 지표는 담화에서 언급되고 있는 개체를 추적하는 기능을 하는 추상적인 대상물로서 취급된다. 지시대상자의 어떤 속성이 일치자질로서 표현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많으나, 대체로 화자와 관련된 담화상의 역할로서 인칭(person), 수(number), 성(gender)이 있다. 그래서 지표는 다른 이론들과 달리 내부구조를 가진다. 지표가 내부구조를 갖는다는 말은 속성 지표의 속성가가 자질구조로 되어 있다는 뜻이다.

(12a)에서 *John*이 여성 대명사 *she*와 지표가 같다. 이는 영어의 이름 규약과 어긋나는 것으로 설명이 곤란하다. 그러나 HPSG는 영어와 같은 자연 성(natural gender)의 언어에서는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는 그들의 지표에 어휘적으로 성을 명세하지 않고, 명세 [GEND fem]을 갖는 지표는 여성에 정박되도록 하는 화용론적 제약(pragmatic constraint)을 제시하여 해

결한다. 즉 대명사 *she*의 완전한 구조는 아래와 같다.



위에서 CONTENTINDEX의 경로와 CONTEXTBACKGROUNDINST의 경로가 꼬리표 [1]로 동일하여 구조공유된다. 즉 여성 대명사 *she*는 지시 대상자가 여성이라는 전제와 통합된다. 이러한 화용론적 제약은 (12b)에서 대명사의 선택이 지시대상자의 성(sex)에 의존하여 결정되는 이유를 밝혀 준다. 즉 *my neighbor*가 남성이면 남성 대명사 *he*와 여성이면 여성 대명사 *she*와 일치한다. (12c)는 대명사의 직시적(deictic) 용법에 의하여 비문이 된다. 왜냐하면 직시적 지시는 발화의 화맥속에서 두드러진 어떤 대상물에 직접 정박되는 지표에 의하여 분석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가정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화맥속에서 두드러진 대상물은 남자(man)인데, 여성 대명사 *she*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비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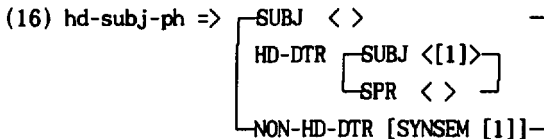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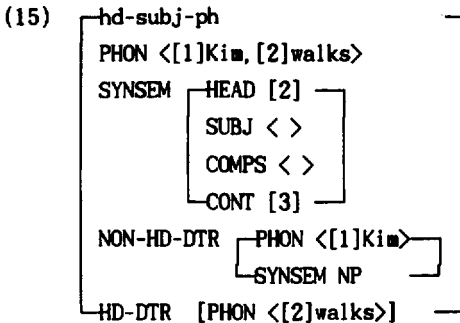
3. 영어의 일치구문

3.1 주어-동사 일치

영어의 일치구문 가운데 주어-동사 일치구문은 크게 표준적인 일치현상과 특수한 일치현상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표준적인 일치현상의 예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 (14) a. Kim walks/*walk.
- b. The dog walks/*walk.
- c. Birds sing/*sings.

위의 예문에서 비문과 정문의 구별은 주어와 동사의 일치자질의 값이 공유되면 정문이고, 자질값이 서로 고유하지 못하면 비문이 된다. (14a)의 주어 *Kim*과 (14b)의 *the dog*은 단수명사이므로 단수동사 *walks*와 결합하여 정문이 되나, 복수동사 *walk*와는 수의 값이 충돌하여 비문이 된다. 한편 (14c)의 주어 *birds*는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복수동사인 *sing*하고 결합한다. 예문 (14a)의 자질구조는 (15)이고, 이는 주어-동사구의 결합으로 (16)의 핵어-주어구의 제약을 지켜야 한다.



(16)의 제약에 의하면 핵어구의 SUBJ 값([1])과 비핵어구 즉 주어구의 SYNSEM 값([1])이 공유되어야 한다. 주어 *Kim*은 3인칭 단수명사로서 동사구 *walks*의 SUBJ 값 3인칭 단수 주격명사구와 공유되기 때문에 정문이 된다.

Sag & Wasow(1998)는 영어의 일치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종전의 INDEX 대신에 AGR 자질을 도입하였는데 이 자질은 2개의 값 PER과 NUM을 갖는다. 영어의 일치현상에는 성(GEND)의 구별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불어나 독일어의 일치현상에는 성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음은 특수한 경우의 일치현상으로서 Nunberg(1977)이 제시한 비유적인 지시의 언어 용례 중에 Pollard & Sag(1992)이 일치현상을 순수한 통사적 현상만으로 파악해서는 안된다고 제시한 자료가 있다. 어떤 명사들(*the books*)은 단수나 복수로 정해져 있는 반면에, 어떤 명사들(*faculty*)은 단수 또는 복수가 될 수 있다. 특수한 경우란 형태는 단수형 주어이나 복수동사와 결합하거나, 복수형 주어이나 단수동사와 결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다음의 몇 가지 종류가 있다.

(17) a. The hash browns at table nine are/*is getting cold.

b. The hash browns at table nine *are/is getting angry.

위의 예문은 지시 전이(Reference Transfer)의 예문으로서 (17a)의 주어 명사구 *hash browns*는 내재적 또는 형태론적으로 복수명사이다. 그러나 (17b)의 주어 명사구 *hash browns*는 식당의 9번 테이블에서 *hash browns*를 시킨 손님 한 사람을 가리키므로 단수가 된다. 즉 지시대상자가 비집합 개체(nonaggregate entity)로 전이되었다. 이일호(1993)은 명사 *hash browns*이 의미내용의 지표의 제약의 집합 가운데 하나로서 *hash browns* 관계를 가지며 해당되는 개체는 *order* 관계의 논항 ORDERED와 구조공유하도록 설명하였다. 이때 주어 명사구 *The hash browns at table nine*은 음식을 시킨 사람을 가리킬 경우에는 단수가 되고, 주문한 음식을 가리킬 경우에는 복수가 된다. 즉 단수와 복수에 대하여 미명세 한다. 형용사 *cold*는 [-animate]의 개체와 관련되고, 형용사 *angry*는 [+animate]와 관련된다. 핵어-주어구의 제약에 의하면 *cold*와 결합하는 주어는 주문한 음식이 되어 명사구가 복수로 전이되어 동사구의 동사도 복수가 된다. 반면에 *angry*와 결합하는 주어는 음식을 시킨 사람이 되어 명사구가 단수로 전이되어 동사

구의 동사도 단수가 된다.

한편 단수형 복수(Singular plurals)의 예로서 아래의 것들이 있다.

- (18) a. Eggs is/*are my favorite breakfast.
- b. Doing phonology problems and drinking vodka makes me sick.
- c. Two hundred dollars is a lot of money to lose.

(18a)의 *Eggs*는 통사적, 형태론적으로 복수 명사이지만, 여기서는 요리의 한 종류를 지칭하므로 단수로 취급된다. (18b)는 2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일련의 사건으로 취급하여 단수로 받는 반면에, 다른 하나는 분배적 해석을 받아 복수로 취급받는다. 즉 *Doing phonology problems makes me sick and drinking vodka makes me sick*의 구조로 분석된다. (18c)는 잃어버린 돈 전체를 한 묶음으로 취급하여서 단수형을 요구한다. 위의 예문의 복수명사들은 형태론적으로는 복수이나 단수형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단수와 복수에 대하여 미명세 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즉 *eggs*는 달걀의 복수형과 요리의 한 종류로서 단수형을 동시에 갖는다. 그러나 *breakfast*라는 음식과 관련되므로 단수 취급하여 동사도 단수형이 된다.

다음은 집합명사(collectives)의 예문으로서 형태는 단수형을 취하나 집합 구성원 각각을 언급하는 것으로 의미적으로 복수가 되는 것들이다.

- (19) a. The faculty are all agreed on this point.
- b. If your family are all going to be here next week, then let's have a party.

집합명사들은 그들이 의미하는 대상이 비집합 개체나 집합 개체(aggregate entity)로4 나뉠 수 있다. 비집합 개체로 지칭되면 단수 일치가 일어나고, 집합 개체로 지칭되면 복수 일치가 이루어진다. 집합명사의 단수와 복수에 대하여 미명세 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명사구 *faculty*와 *family*는 NUM의 값을 미명세 하였다가 문장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딸범주의 정보 특히 CONTEXT의 정보를 함할 때 집합명사의 단수와 복수가 결정된다. 예를 들면 양화사 *all*과의 결합에 의하여 집합명사가 복수형으로 취급되며 동사도 복수형을 갖는다.

위의 예문 가운데 지시의 전이는 문장 안의 정보 특히 CONTEXT의 정보에 의해서 주어의 수가 정해진다. 다시 말하면 아래의 화맥일관성의 원리를 준수하여 주어-동사의 일치현상이 설명된다는 것이다.

(20) Principle of Contextual Consistency

The CONTEXT|BACKGROUND value of a given phrase is the union of the CONTEXT|BACKGROUND values of the daughters.

언어의 행위 가운데 일치현상의 설명 역시 Grice(1975)의 '협동의 원리'가 적용되어 대화가 벌어지고 있는 단계에서 대화의 목적과 방향에 의하여 요구 되는대로 협동하도록 하라는 원리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장의 모든 구성성분의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언어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영어의 일치현상의 설명이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정보에 의존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명사 *all*, *some*, *most* 등의 수는 보어구인 전치사구 속의 명사의 수에 따라서 달라짐을 보여주는 예문들이다.

- (21) a. All of the creeks are polluted.
 b. All of the water is contaminated.
 c. *All of the book is destroyed.
 d. All is silent on the island now.
 e. All four lions eat meat./ All lions eat meat.
 f. Some of the books are destroyed.
 g. Some of the water is used for irrigation.
 h. In this school, most of the children are from the Chinese community.
 i. Most of his time was spent in the library.

명사 *all*이 (21d)에서는 단수로 취급되고, (21e)에서는 전치한정사로서 쓰인다. 한편 (21a,b,c)에서는 *all*이 (22)의 자질구조를 갖는다. 명사 *all*은 보어로서 *of*-전치사구를 취한다. 명사구의 핵어인 *all*의 수는 보어 전치사구의 목적어 명사의 수([1])와 일치한다. 이때 전치사구의 목적어는 (21c)처럼 단수 명사를 목적으로 갖는 전치사구와는 결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all*

이 취하는 *of*-전치사구의 목적어는 다른 *some*과 *most*처럼 복수명사이거나 물질명사([mass])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핵어-보어구에서 보어구의 전치사구 속의 P-OBJ가 복수이면 복수가 되고, 물질명사이면 단수가 된다.

(22) all:

| |
|----------------------------------|
| HEAD noun |
| SPR < > |
| COMPS <P-OBJ NP ₍₁₎ > |
| CONT:INDEX [1] |

예문(21a,f,h)는 *of*-전치사구의 목적어가 복수형이므로 전체 명사구가 복수형이 되어 복수 동사와 결합되었고, 예문 (21b,g,i)는 *of*-전치사구의 목적어가 물질명사로서 단수형이 되어 전체 명사구 역시 단수가 된다. 그리하여 단수 동사와 결합한 것이다.

이상에서 영어의 일치현상 가운데 주어-동사 일치현상을 표준적인 것과 특수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준적인 것은 핵어-주어구 제약에 의하여 일치자질이 공유되어 설명되었다. 반면에 특수한 경우는 명사구의 일치자질 가운데 수가 미명세 되었다가 여러 가지 문장의 정보들이 결합되면서 지시전이나 개체화 등에 의하여 수가 정해지면서 동사와 일치하였다.

3.2 지정어-명사 일치

다음은 영어 일치구문 가운데 지정어-명사의 일치구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 (23) a. This dog/*dogs barked.
- b. These dogs/*dog barked.
- c. A dog/*dogs barked.

예문의 주어 명사구들은 지정어와 핵어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합은 (24)의 핵어-지정어구 제약을 준수해야 한다. 핵어구의 지정어 값([1])과 비핵어구 즉 지정어구의 SYNSEM 값([1])이 공유된다. SYNSEM 속의 일치와 관련된 자질 INDEX 값 역시 공유되어야 한다.



예문 (23a,c)에서 한정사 *this*와 *a*는 단수명사인 *dog*과 결합이 되고 복수명사인 *dogs*와는 결합되지 않는다. 한편 예문 (23b)에서 지정어 *these*는 복수명사인 *dogs*와 결합되고 단수명사인 *dog*과는 결합되지 않는다.

예문 (25)의 지정어-명사의 일치현상은 지금까지의 일치의 분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즉 명사를 단수명사와 복수명사의 이분법으로는 정문과 비문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명사 가운데 단수명사와 복수명사로 이분되지 않고 다른 유형의 명사집단이 존재한다.

- (25) a. Much furniture was broken.
- b. *A furniture was broken.
- c. *Much chair was broken.
- d. A chair was broken.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Sag & Wasow(1998)은 자질 COUNT를 도입하였다. 명사를 크게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로 분류하고, 가산명사는 단수와 복수의 수를 갖는다. 반면에 불가산명사 가운데 물질명사는 단수를 취한다. 가산명사와 물질명사의 구분은 전적으로 의미적 문제이다. 그러나 통사적인 설명을 위하여 자질 COUNT를 도입한 것이다. 가산명사는 [COUNT +]를, 물질명사와 추상명사는 [COUNT -]를 갖는다. 예문 (25a,b)에서 명사 *furniture*는 물질명사로서 [COUNT -]를 가지고 있어서 단수를 나타내는 지정어 *a*와는 공기할 수 없다. 반면에 예문 (25c,d)의 명사 *chair*는 [COUNT +]를 가지고 있어서 [COUNT -]를 가지고 있는 지정어 *much*와는 공기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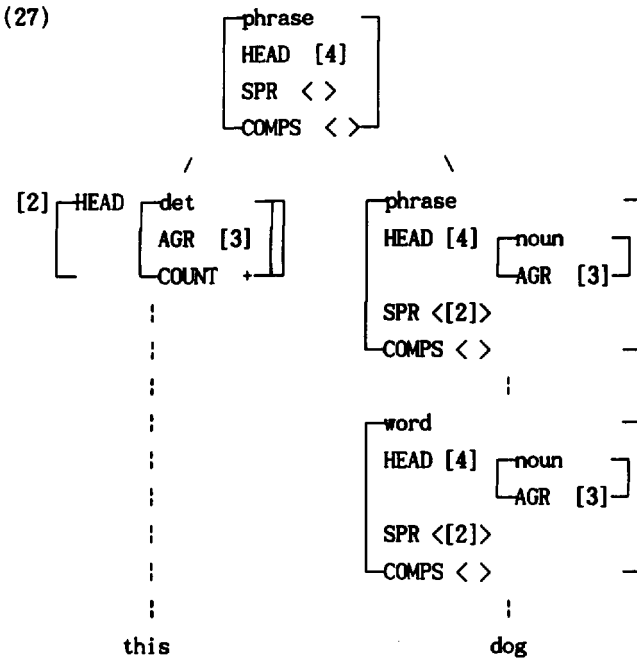
지정어 가운데 양을 나타내는 양화사들이 있는데 각 어휘마다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다.

- (26) a. every man/*men/*advice/faculty
- b. all men/*man/advice/faculty
- e. some books/vegetation

- f. many suggestions/*suggestion/*advice
- g. much advice/*suggestion/*suggestions

지정어 *every*는 단수명사인 *man*과 결합 가능하고, *faculty*는 단수 또는 복수로 쓰이기 때문에 지정어 *every*와 결합이 가능하다. 지정어 *all*은 복수명사 *men*, 물질명사 *advice*, 그리고 단수와 복수로 쓰이는 *faculty*와 결합할 수 있다. 지정어 *some*은 복수명사와 물질명사와 결합할 수 있다. 지정어 *many*는 복수명사와 결합하고, 지정어 *much*는 물질명사와 결합할 수 있다.

주어진 예문의 수형도를 보면서 지정어-명사 일치가 제약기반의 분석을 준수함을 살펴보기로 한다.



주어진 구는 핵어-지정어구의 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핵어명사 *dog*은 AGR 값으로 [3]을 요구하는 품사가 명사이며, 지정어로 [2]를 요구하는 단어이다. 이 단어는 핵자질원리에 의하여 핵어값이 상위 구범주에까지 전

수되고, 항가원리에 의하여 항가자질인 SPR의 값이 상위범주에까지 전수된다. 핵자질원리에 의하여 최상위 범주의 핵어값은 핵어구의 핵어값과 동일하고, 항가원리에 의하면 최상위의 범주에서는 핵어구가 지정어를 취하여 SPR의 값이 영이 된다. 이때 지정어는 핵어-지정어구 제약에 의하여 핵어의 일치자질의 값과 동일하여야 한다. 즉 핵어명사 *dog*이 단수이기 때문에 지정어 *this*가 단수일 때 결합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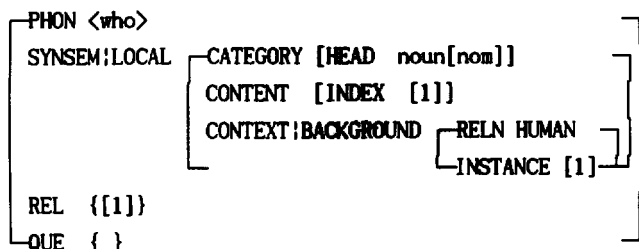
3.3 대명사-선행사 일치

영어의 대명사-선행사 일치구문은 크게 관계절에서의 선행사-관계대명사 일치와 조용사 일치로서 선행사-제귀대명사 일치의 현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문 (3a,b)를 제약기반 분석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보면 선행사 (*the man*)과 관계절 *who I saw yesterday*의 결합은 핵어-관계절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핵어-관계절 제약을 준수해야 한다.



위 제약은 *wh*-관계절에서 비핵어딸 관계절의 REL 값([1])이 핵어딸 선행사의 MOD 값 명사구의 *index* 값([1])과 공유된다. 이때 선행사와 일치하는 관계대명사의 어휘항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9) 관계대명사 *who*의 어휘항목



관계대명사 *who*는 CONTEXT|BACKGROUND가 값으로 RELN을 취하고 그 값으로 HUMAN을 취했다. 즉 선행사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

약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면 관계대명사 *which*가 쓰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장치가 필요하다. 영어 관계대명사는 humanness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자질 HUMAN에 의해서 관계대명사 *who*는 [HUMAN +]이고 관계대명사 *which*는 [HUMAN -]을 값으로 갖는다. 이에 따라서 예문 (3a)는 선행사가 사람으로서 [HUMAN +]인 관계대명사 *who*를 요구하고, 예문 (3b)는 선행사가 사람으로서 관계대명사 *who*를 요구하나 [HUMAN -]인 *which*와 결합하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

다음은 선행사-관계대명사 일치현상 가운데 특수한 경우의 예를 살펴보자.

- (30) a. The volcano which/*who has been dormant for a century erupted.
 b. The volcano who just left the room was Bill's Kid.
 c. The soldiers which were made of lead were thrown away.

선행사 *volcano*는 [HUMAN -]로서 예문 (30a)처럼 관계대명사 *which*를 요구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o*가 오면 비문이 된다. 예문 (30b,c)는 지시전이의 예들로서 명사의 지시가 바뀌어 [HUMAN -]가 [HUMAN +]가 된다. 예문 (30b)는 '밤을 금방 나선 화산 같은 성질을 지닌 사람은 빌의 아이다'의 해석을 가지며, *volcano*가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who*가 된다. 반면에 예문 (30c)에서 '납으로 만든 군인상은 폐기되었다'처럼 *soldiers*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되어 관계대명사 *which*를 요구한다.

다음은 조동사 일치구문으로서 선행사와 재귀대명사의 일치현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 (3) d. She_i enjoys herself/*himself.
 ARG-ST <NP_i, NP:ana_i/*NP:ppro_i>
 e. Susan_i told a story to herself/*her_i.
 ARG-ST <NP_i, NP_j, PP[to]:ana_i/*PP[to]:ppro_i>.

위의 예문들은 표준적인 결속현상의 예로서 HPSG의 결속이론에 의하여 잘 설명된다. HPSG에서 명사성 대상물은 *pronominal*(*prno*)과 *nonpronominal* (*npro*) 유형으로 나뉘고, *pronominal* 유형은 하위유형으로

*anaphoric(ana)*과 *personal-pronominal(ppro)*을 가지며, *anaphoric* 유형은 하위유형으로 *reflexive(refl)*과 *reciprocal(recp)*을 갖는다.

HPSG의 결속이론은 아래와 같다. 이 이론은 국부적 사격통어와 국부적 사격결속이라는 비형상적 관계에 의하여 기술되었다.

(31) HPSG Binding Theory

Principle A: A locally o-commanded anaphor must be locally o-bound.

Principle B: A personal pronoun must be locally o-free.

Principle C: A non-pronoun must be o-free.

이 원리에 의하면 예문 (3d)에서 결속이론의 원리 A에 의하여 동일지표가 당연하다. 조용사는 ARG-ST에서 사격성이 낮은 명사에 의하여 결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she*가 유일한 국부적 사격통어자이며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는 국부적 사격결속자이므로 조용사는 *himself*가 아니라 *herself*가 된다. 예문 (3e)에서 결속이론의 원리 A에 의하여 ARG-ST에서 사격성이 낮은 *Susan*이 재귀대명사 *herself*의 사격결속자가 되어 지표가 공유되어 일치가 이루어지나, 인칭대명사 *her*일 경우에는 원리 B가 적용되어 국부적으로 사격 자유가 되어 동일지표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

Sag & Wasow(1998)은 재귀대명사가 동사의 보어인 전치사구 안에 있을 경우에 재귀사의 *synsem*-구조는 동사의 주어와 목적어 명사구의 *synsem*-구조와 함께 동일한 ARG-ST에 나타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전치사를 2가지로 분류하여 논항 표지어로 기능하는 전치사들을 위하여 그들은 전치사의 목적어 명사구에 관한 정보를 그들이 투사하는 전치사구까지 전송하는 어떤 방법을 제공하였다. 보어처럼 전치사구를 취하는 상위의 동사는 그의 ARG-ST에 있는 전치사구의 목적어 명사구에 관한 정보를 갖게된다. 이런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은 P-OBJ라 불리는 핵자질이다. 오직 논항 표지하는 전치사만이 비영 P-OBJ 명세를 갖는다. 그들은 '공지표된 요소들은 일치하라'는 조용사 일치원리(Anaphoric Agreement Principle)와 새로운 결속이론¹⁾을 제시하며 주어진 예문을 설명하였다.

1) Binding Principle

Principle A: An [ANA +] *synsem*-struc must be outranked by a coindexed *synsem*-struc.

예문의 동사 *told*가 갖는 ARG-ST를 아래와 같이 상정하였다.

(32) ARG-ST <NP_i[ANA -], NP_j[ANA -], PP[P-OBJ NP[ANA +]_i]>

위의 ARG-ST는 결속이론과 상응한다. 즉 [ANA +] 명사구 *herself*와 전치사구 *to herself*는 동등한 등급이다. 왜냐하면 전자는 후자의 P-OBJ 값이기 때문이다. 둘 다 ARG-ST 리스트의 전치사구 *to herself*는 앞서서 첫 번째 [ANA -] 명사구 *Susan* 보다 지위가 낮아야 된다. 첫 번째 명사구 *Susan*과 [ANA +] 명사구 *herself*는 공지표되어 원리 A를 만족시킨다. 그러나 비문의 경우에 전치사구와 P-OBJ 값은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첫 번째 명사구가 그들의 지위보다 높다. 그러나 공지표된 명사구보다 지위가 낮은 [ANA -] 명사구를 가지고 있어서 원리 B를 위반하였다.

조용사의 일치현상 가운데서 특수한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예문 (33)은 집합명사 *faculty*가 의미적으로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되므로, 동사를 선택할 때는 단수로 행동하고, 재귀대명사를 선택할 때는 복수로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고, 문장의 성립요건이 오직 의미적 기준뿐이라면 예문 (33c,d)가 비문이 될 까닭이 없다.

- (33) a. The faculty is voting itself a raise.
 b. The faculty are voting themselves a raise.
 c. *The faculty is voting themselves a raise.
 d. *The faculty are voting itself a raise.

그러나 예문에서 주어 명사의 일치자질이 일단 결정되면 문장 전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즉 HPSG 결속이론의 원리 A에 의하면 국부적으로 사격통어된 조용사는 국부적으로 사격결속되어, 그의 선행사와 일치하여야 한다. 예문 (33a)의 경우 주어가 단수로 동사 *is*와 일치하고 따라서 조용사도 3인칭 단수인 *itself*와 공지표되어 정문이 되고, 예문 (33b)에서는 주어가 복수로 동사 *are*와 일치하고 따라서 조용사도 3인칭 복수인 *themselves*와 공지표된다. 반면에 예문 (33c,d)는 주어와 동사의 일치

Principle B: An [ANA -] synsem-struct must not be outranked by a coindexed synsem-struct.

에 의하여 주어와 단수와 복수로 결정되었지만 사격통제자인 주어와 조용사 사이에 공지표되지 못하여 비문이 된다.

예문 (34)들은 지시전어와 관련된 것으로서 선행사의 형태는 복수형이나 지시대상자가 전이되면서 단수로서 기능을 하여 결속원리를 준수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 (34) a. The hash browns at table nine said he/*they can't find the men's room.
 b. The ham sandwich at table six just made a fool of himself/*itself.

예문 (34a)에서 *the hash browns at table nine*의 지시대상자가 음식을 주문한 사람으로 결정되면, 3인칭 남성 단수명사로 취급되어 종속절에서 인칭대명사 *he*와 일치한다. 이 명사의 수가 단수이기 때문에 복수 대명사인 *they*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HPSG의 결속이론의 원리 B를 준수하여 인칭대명사인 *he*가 국부적으로 사격 자유롭기 때문에 정문이 된다. 마찬가지로 예문 (34b)에서 *the ham sandwich at table six*의 지시대상자는 음식을 주문한 고객이므로 3인칭 남성 단수명사가 되어 결속이론의 원리 A에 의하여 재귀사 *himself*와 일치한다. 그러나 예문의 주어 명사가 사람을 지시하는데도 사물로 취급하여 재귀사를 *itself*로 선택하는 것은 잘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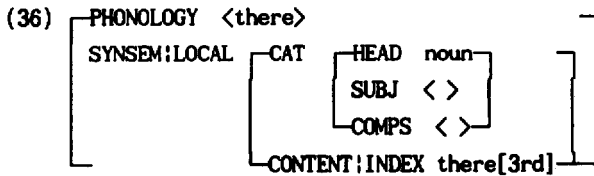
3.4 *There* 구문에서의 일치

다음은 영어의 *there*-구문 속의 일치현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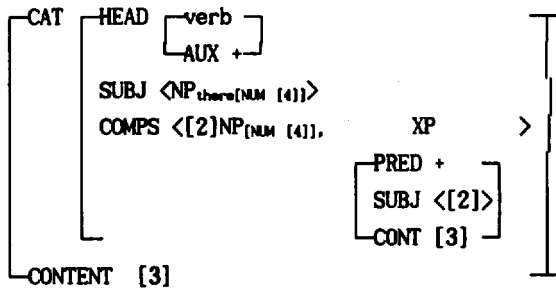
- (35) a. There is a unicorn in the garden.
 b. There are many people fond of Pat.
 c. There are people looking through the window.
 d. There was a felon elected to the city council.

HPSG는 *index*의 하위유형으로 *referential(ref)*, *there*와 *it*의 3가지를 갖는다. 하위유형 *there*와 *it*는 허사(dummy or pleonastic) 대명사 *there*와 *it*를 위하여 사용된다. 반면에 지시적 지표는 의미적으로 의미내용이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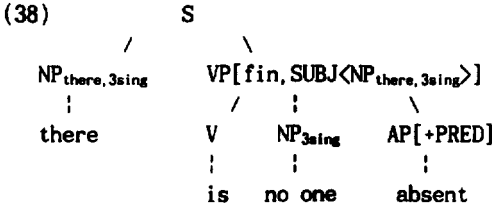
명사와 격표지어로서 기능을 하는 비서술 전치사구를 위하여 사용된다. 영어 *there* 구문의 분석에 필요한 2가지의 어휘항목의 자질구조는 아래와 같다.



(37) 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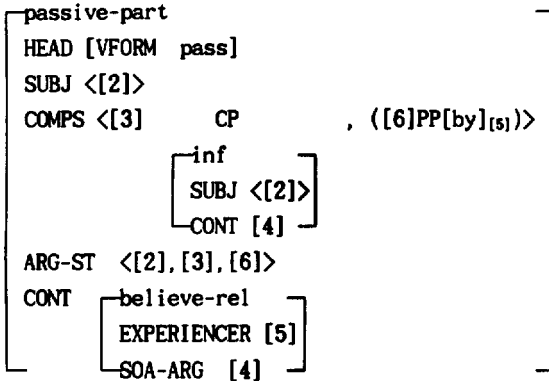
혀사 *there*는 품사는 명사로서 3인칭의 지표를 갖는다. 한편 *there* 구문에 사용되는 *be* 동사는 자질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품사는 동사이며 [AUX +]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SUBJ의 값으로 지표의 수(NUM)가 보어 명사구의 지표의 수와 일치하는 *there* 명사를 요구한다. 또 COMPS 값으로 지표의 수가 SUBJ의 값인 *there*의 수와 일치하는 하나의 명사구와 SUBJ 값으로 COMPS 속의 명사구를 요구하며 의미내용이 상위의 의미내용과 일치하는 [PRED +] 자질을 갖는 XP를 요구한다. 예문 (35)에서 전치사구, 형용사구, 현재분사구와 과거분사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서 *there* 구문속의 일치현상을 설명하기로 한다. 예문 (4a)의 수형도는 아래와 같다.



위의 수행도에서 핵어동사 *is*는 *there* 구문에 이용되는 동사로서 (37)의 어휘항목의 자질구조의 제약을 준수한다. 첫 번째 보어 명사구는 3인칭 단수가 되며 두 번째 범주는 AP로서 [+PRD] 자질을 가진다. 상위의 동사구는 핵어-보어구로서 핵어-보어구 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핵자질원리에 의하여 핵어동사의 *fin*가 상위에 상속되었으며 항가원리에 의하면 핵어동사의 항가자질 가운데 COMPS 값이 채워져 동사구에서는 오직 SUBJ 명사 *there*만을 요구한다. 이때 명사 *there*는 *there* 구문에 사용되는 것으로 (36)의 자질구조를 가지며 핵어동사 *is*의 첫 번째 보어 명사구의 수와 일치한다. 즉 3인칭 단수가 된다. 영어의 주어-동사의 일치에 의하여 주어 *there*의 일치자질 3인칭 단수가 핵어동사 *is*의 단수형과 일치하여 *there* 구문의 일치현상이 설명된다.

이러한 *there* 구문의 일치현상의 설명은 예문 (4c,d)의 장거리 수의 일치현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핵어동사의 자질구조와 예문의 수행도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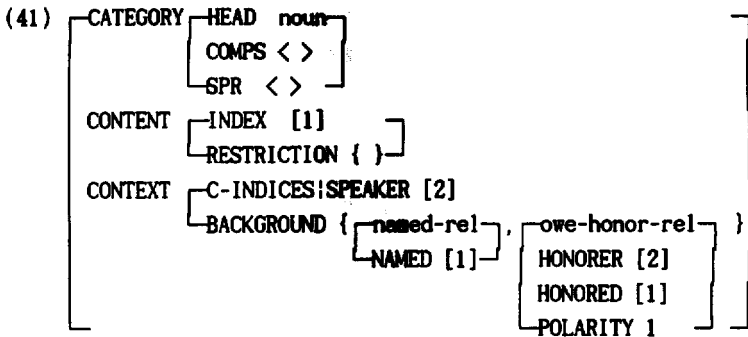
(39) believed



한국어에서 주격 존칭 표지어 -님은 그의 지시대상자가 존경을 받는 명사구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또한 접미사 -시는 존경이 주어의 지시대상자에게 주어질 경우에 상위문의 동사나 형용사에 나타난다. -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존경이 주어의 지시대상자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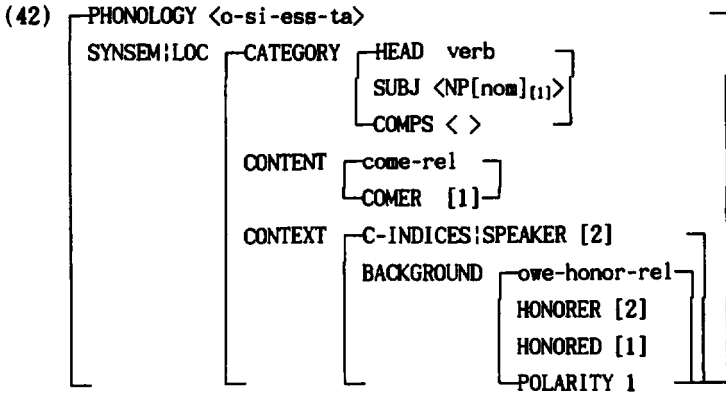
발화의 화맥에서 화자가 주어의 지시대상자에게 존경을 나타내면 화자는 상위문의 술어의 -시 형태를 사용하고, -님과 함께 주어를 표기하도록 요구받는다. 만약 화자가 주어의 지시대상자에게 존경을 나타내지 않을 경우엔 -님과 -시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존칭의 동사의 형태표기와 존칭의 주어표기는 동시에 나타나거나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다. 예문 (5a)에서 주어와 동사의 형태에 존칭의 표기가 동시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이고, 예문 (5b)에서 주어에 존칭의 표기 -님이 나타났고 동시에 동사에도 존칭의 -시가 나타났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이 된다. 그러나 예문 (5c,d)는 일반적으로 부적절하다. 주어에는 존칭 표기가 없는데 동사에 존칭의 -시가 표기되거나, 주어에 존칭의 -님이 표기된 반면에 동사에는 존칭의 표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어의 존칭표기와 동사의 존칭표기가 사회적 화맥의 사실에 대해 상반되는 지적을 하기 때문이다.

어떤 화맥에서는 -님과 -시가 화자의 주어 지시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관계보다는 오히려 수신자(addressee)의 주어 지시대상자에 대한 관계에 의해 지령을 받는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님이 BACKGROUND에서 화자가 -님이 결합된 명사구의 지시대상자에게 존경을 보낸다는 정보를 소개하는 자질구조를 갖도록 한다. '김사장님'과 같은 존칭 명사구의 LOCAL 값은 아래와 같다.



위 예문의 주어인 '김사장님'은 품사가 명사이다. 국어의 존칭 일치구문을 다루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CONTEXT로서 2가지의 정보를 담고 있다. 먼저 화맥의 지표(C-INDICES)로서 화자(SPEAKER)를 그 값으로 취하고, 화용적 배경지식으로서 BACKGROUND를 가지는데 그 값은 집합으로 이루어졌다. 하나의 논항은 '김사장님'이라고 이름 불리는 사람이며, 다른 논항은 존경의 관계로서 존경하는 자(HONORER)가 화자(SPEAKER)이고 존경받는 자(HONORED)가 '김사장님'이라고 이름 불리는 사람이 되며, 이 관계가 제대로 정박이 되면 POLARITY가 1이 되고 존경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POLARITY의 값은 0이 된다.

주어 명사구 '김사장님'과 일치하는 동사의 자질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동사 '오셨다'에 의하여 명세된 배경조건(background condition)은 명사구 '김사장님'의 배경조건과 일치하기 때문에 예문 (5b)는 적절한 표현이다. 동사 '오셨다'가 요구하는 주어는 화맥의 배경조건에서 존경을 받는 자([1])로서 명사구 '김사장님'과 구조공유된다. 예문 (5c)에서 동사는 존칭의 표기가 되었으나 동사가 요구하는 주어는 존칭표기가 되지 않은 '김사장'이기 때문에 화맥의 배경조건이 일치하지 못하여 적절치 못한 표현이 된다. 예문 (5d)에서 동사가 존칭이 표기되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존칭 표기된 명사구의 배경정보와 불일치하는 배경정보를 명세하여 비록 문법적 제약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모순(contradictory) 배경 가정을 포함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부적절하다. 한편 예문 (5a)는 주어와 동사 모두가 존칭의 표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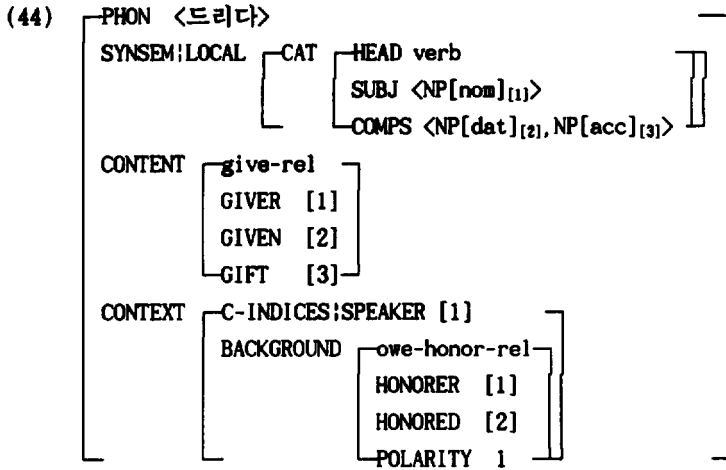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맥의 극성이 0이 되어 서로 일치하여 좋은 표현이 된다. 이처럼 한국어의 존칭 일치는 화용론적 일치로서 지표일치(index agreement)와 통사적 일치(syntactic agreement)와는 다르다.

한국어에는 주어-동사 사이의 주어 존칭의 일치현상이 있는 것과 유사하게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목적어 존칭 일치현상이 있다.

- (43) a. 학생이 선생님께 책을 드렸다.
 b. #학생이 선생님께 책을 주었다.
 c.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책을 *주었다/주시었다/*드리었다/
 *드리시었다.
 d.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책을 *주었다/*주시었다/드리었다/
 드리시었다.

예문 (43a)에서 존칭의 동사 ‘드렸다’는 존경의 대상인 목적어 ‘선생님께’와 함께 쓰였기 때문에 정문이 되고, 예문 (43b)에서 존칭의 동사가 아닌 ‘주었다’는 목적어가 존경의 대상이 아닌 것과 일치하여야 하는데 존경의 대상인 ‘선생님께’와 함께 쓰였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그러나 예문 (43c,d)에서 목적어가 존경의 대상인 ‘아버지에게’와 ‘할아버지에게’이지만 (43c)에서는 ‘드리었다’와 결합될 때 적절한 표현이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목적어 자체가 존경의 대상이**화** 하더라도 주어와의 관계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목적어가 존경의 대상인 ‘아버지에게’이나 주어와의 상관성에서 볼 때 주어 ‘할아버지가’ 보다는 존경의 정도가 오히려 낮기 때문이다. 반면에 (43d)에서는 주어와 목적어가 존경의 대상이긴 하나 주어 보다는 목적어의 존경의 정도가 높기 때문에 ‘드리었다’의 표현은 적절하고 ‘주었다’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 이러한 현상의 설명은 통사 또는 의미적 설명에만 의존할 수 없고 화용적인 정보도 통합하여야 한다.

목적어 존칭 일치구문의 동사 ‘드리다’의 자질구조는 아래와 같다.



어휘 '드리다'는 동사로서 *give*의 관계에서 GIVER의 의미역을 갖는 주격명사를 주어로 요구하고, 2개의 보어를 필요로 한다. 즉 *give*의 관계에서 의미역 GIVEN을 갖는 간접목적어와 의미역 GIFT를 갖는 직접목적어 명사구들이다. 이들은 화용적 정보를 담고 있는 CONTEXT|BACKGROUND의 존경의 관계의 의미역들과 구조공유한다. 존경의 관계에서 존경하는 자(HONORER)는 화용적 지표인 화자(SPEAKER)와 구조공유되고, 존경받는 자(HONORED)는 의미내용의 간접목적어와 구조 공유된다. 이때 POLARITY 값이 1이면 실제로 존경하는 자와 존경받는 자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값이 0이면 그런 관계가 실패했다는 것이다.

한국어 존칭 일치구문을 정보기반 및 제약기반의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의미적인 자질 INDEX와 화용적인 자질 CONTEXT을 도입하여 어휘의 자질구조를 제시하고 어휘유형의 제약과 구, 절 또는 원리의 제약을 통하여 한국어의 존칭 일치구문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였다.

5. 결론

이상에서 영한 일치구문을 어휘 및 제약기반 분석으로 다루어 보았다. 일치구문에 대한 2가지 접근법 가운데 제약기반 접근법이 파생(도출)기반 접근법보다 더 설명력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HPSG의 특성인 어휘 및 제약

기반의 이론을 대표적인 일치구문들--주어-동사 일치구문, 지정어-명사 일치구문, 선행사-대명사 일치구문, there-구문 속의 일치현상과 한국어의 존칭 일치구문--에 적용하여 보았다. 각 구문들의 특성을 살펴 표준적인 현상과 특수한 현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각 구문의 어휘의 자질구조 속에 일치분석에 관련된 자질들--의미적인 INDEX와 화용적인 CONTEXT--을 도입하여 설명하였다. 어휘 및 구, 절, 심지어 원리까지 제약들을 제시하여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제약기반의 분석방법이 다른 구문 속의 일치현상의 처리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 이일호. 1993. 의미현상으로서의 일치의 문제.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Baker, C.L. 1989. *English Syntax*. The MIT Press.
- Barlow, Michael. 1988. *A Situated Theory of Agreement*.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Borsley, Robert. 1991. *Syntactic Theory: A Unified Approach*. Routledge, Chapman and Hall, Inc.
- Gazdar, G. Ewan Klein, Geoffrey K. Pullum & Ivan A. Sag. 1985. *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Oxford: Blackwell's an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rice, H.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
- Nunberg, Geoffrey. 1977. *The Pragmatics of Reference*.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CUNY Graduate Center.
- Pollard, C. & Sag, I.A. 1992. *Anaphors in English and the Scope of Binding Theory. Linguistic Inquiry 23:365-424*.
- Pollard, C. & Sag, I.A. 1994.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nd Stanford: CSLI Publications
- Sag, I.A. & Wasow T. 1998. *Syntactic Theory: A Formal Introduction*. Stanford: CSLI Publications.
- Sag, Ivan. 1997. English Relative Clause Constructions. *Journal of Linguistics 33: 431-483*. Cambridge University Press.

156 임 경 섭

520-714, 전남 나주시 대호동 252
동신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
E-mail: kslim@dongshinu.ac.kr
Tel: +82-613-330-3622